

# 영어 교육적 관점에서 본 구두점의 의미와 문법적 역할

한 학생\*

## 차례

1. 들어가기
2. 영어 구두점과 의미
3. 영어 구두점과 문법성
4. 영어 구두점과 명확성
5. 맺음말

## 1. 들어가기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는 다음과 같이 구두점과 관련한 성취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 1998).<sup>1)</sup>

(1) a. 중학교 1학년 1학기 <쓰기>:

문장을 읽으며 적절한 구두점 (쉼표, 따옴표, 느낌표)을 표시한다.

b. 중학교 1학년 2학기 <쓰기>:

오류가 있는 짧은 문장을 읽고, 철자, 구두점, 어법에 맞게 고쳐 쓴다.

\*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교수

1) 1997년초 교육부에서 진행하던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마련에 참여해 중학교 교과 과정을 검토했던 나는 영어 구두점 전반에 대한 성취 기준을 학교 교육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7년 2학기에 미국으로 연구년을 가게 되어 그 이후 작업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나의 이 제안은 제7차 교육과정에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취 기준의 형태로 반영된 것이다.

## c. 중학교 2학년 2학기 &lt;쓰기 심화&gt;:

오류가 있는 짧은 글을 읽고, 철자, 구두점, 어법에 맞게 고쳐 쓴다.

## d. 중학교 3학년 1학기 &lt;쓰기&gt;:

구두점 (콜론, 세미콜론, 하이픈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sup>2)</sup>

나라에서 정한 중학교 영어 교육 과정에 구두점에 관한 성취 기준이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현행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는 구두점에 관한 항목이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cf. 김정수 2006).<sup>3)</sup> 이는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통해서도 영어 구두점의 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sup>4)</sup>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구두점에 대한 성취 기준마저 없고, 수능 등 시험에서 구두점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출제되지 않으니,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못한 구두점의 용법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하여 영어 구두점에 대해 제대로 교육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학에 와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영어 구두점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사각 지대에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두점 중 마침표와 물음표에 관한 성취 기준은 초등학교 6학년 <쓰기> 과정에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쓰기>: 인쇄체 대소 문자와 구두점 (마침표, 물음표 등)을 바르게 쓴다.”

3) 김정수(2006)에 따르면, 연구 대상으로 삼은 5종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 가운데 2학년과 3학년용 교과서에서 구두점과 관련된 연습 문제를 제시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단지 1학년용 교과서에서 평서문에는 마침표, 의문문에는 물음표를 사용한다는 정도의 극히 단순한 연습 문제만을 제공할 뿐이었다. (앞의 주석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침표와 물음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미 다루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는 이 교과서들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년별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서도 검인정 교과서로 선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 검인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김정수(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조사 대상 학생 중 반점점(세미콜론)과 덧금(하이픈)의 사용법을 묻는 문제에서는 100%의 오답률을, 점점(콜론)의 경우는 90%에 가까운 오답률을 보였다. 이는 조사 대상 학생들 대부분이 본문의 (1d)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중학교를 졸업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례로 2007년 2학기 서울 소재 K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글쓰기 강좌를 수강하는 인문사회계열 전공 학생 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영어 구두점에 대해 배워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혹은 하나도 못 배웠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52%에 달했다. 특히 과반수의 학생들이 거의 혹은 전혀 못 배웠다고 대답한 구두점은 다음과 같았다.

(2)	<u>구두점</u>	<u>거의 혹은 전혀 못 배웠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u>
	:	53%
	;	54%
	,	57%
	—	82%
	—	90% <sup>5)</sup>

상당수 학생들은 영어 구두점의 명칭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과반수의 학생들이 그 명칭을 모르고 있는 구두점은 다음과 같았다.

(3)	<u>구두점</u>	<u>명칭을 모르는 학생들의 비율</u>
	:	76%
	;	71%
	,	91% <sup>6)</sup>

5) 그 외의 구두점들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배우지 못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u>구두점</u>	<u>거의 혹은 전혀 못 배웠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u>
.	8%
,	8%
?	8%
!	11%
‘ ’	17%
“ ”	16%

전체 학생들 중 영어 구두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은 78%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구두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6) 본문의 (2)에 따르면 올린셈표(어포스트로피)에 대해서는 43% 정도의 학생들이 배운 적은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아는 학생이 9%에 불과한 것이 특이하다.

-	92%
—	93% <sup>7)</sup>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 절대다수가 명칭조차 모르고 있는 영어 구두점이 다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영어 구두점 교육이 부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새로이 마련된 영어과 교육과정(cf. 교육부 2007)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던 구두점에 관한 성취 기준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이는 우리나라 영어교육계 전체가 영어 구두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영어 구두점이 기본적으로 영어로 글을 쓸 때 관계가 됨을 감안할 때, 이는 결국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영어로 직접 글을 쓰는, 즉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는 아직도 무관심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sup>8)</sup>

그런데 영어 구두점이 글을 쓸 때뿐 아니라, 글을 읽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본고에서는 영어 구두점이 영어 문장의 정확한 이해 및 문법성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임으로써, 영어 구두점에 대한 지식이 영어의 사용뿐 아니라 영어의 이해에도 긴요하며, 따라서 영어 교육 과정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함을 보이도록 하겠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내에서는 앞의 (1d)에서 보듯이 교육부 공식 문헌에서조차 일부 영어 구두점의 명칭을 우리말화하지 못하고 영어 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칭을 우리말화하지 못한 영어 구두점들이 바로 (3)에서 살펴본 것처럼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명칭조차 모르고 있는 구두점들이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용법을 한국 학생들이

7) 그 외의 구두점들에 대해 명칭을 모르는 학생들의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u>구두점</u>	<u>명칭을 모르는 학생들의 비율</u>
.	15%
,	13%
?	7%
!	8%
‘ ’	39%
“ ”	38%

8) 참고로 미국의 초중등 영어 교과서나 교육용 영문법 교과서에는 구두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설문 조사에서 과반수의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고 대답한 구두점들도 바로 이들이었다. 다음은 해당 구두점의 사용법과 관련해 “대체로 잘 모른다”와 “거의 혹은 전혀 모른다”는 대답을 합산한 비율이다.

(4) 구두점	<u>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u>
:	71%
;	78%
,	63%
-	83%
—	93% <sup>9)</sup>

우리말화하지 못하여 한국 학생들에게 특히 어려움을 주는 영어 구두점의 명칭을 다음과 같은 우리말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본고에서는 이 용어들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 (5) 콜론(:)=겹점
- 세미콜론(;)=반겹점
- 어포스트로피(')=올린침표
- 하이픈(-)=덧금
- 대시(—)=긴덧금
- 이탤릭체(*italics*)=기울임체<sup>10)</sup>

9) 그 외의 구두점들에 대해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u>구두점</u>	<u>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u>
.	12%
,	21%
?	7%
!	13%
' ,	36%
“ ”	28%

10) 독립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탤릭체(기울임체)를 구두점에 포

## 2. 영어 구두점과 의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영어 구두점이 의미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절에서는 이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 2.1. 문장 종결 부호와 의미

다음과 같은 표현의 의미는 그 자체로는 불분명하다.

(6) agreed

구두점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윗표현에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구두점이 가능하다.

(7) a. Agreed.

b. Agreed?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가 마침표나 물음표 등의 구두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할 때, 마침표나 물음표를 발음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어조로 이야기했느냐에 따라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구두점은 바로 그 어조가 나타내는 의미를 표시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구두점은 철자(spelling)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영어 소리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

---

함시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영어의 자모음을 나타내는 철자(spelling) 외에 영어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미 전달 기제를 구두점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참고로 최현배(1937/1984 p.871)는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콜론=쌍점, 세미콜론=쌍반점, 어포스트로피=줄임표, 하이픈=붙임표, 대시=줄표, 쉼표=반점, 마침표=은점 등.

(8) he is rich however I don't like him

위의 표현은 일단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9) He is rich. However, I don't like him.

그런데 같은 표현이 다음과 같은 구두점 표시를 갖게 되면 뜻이 달라진다.

(10) He is rich, however. I don't like him.<sup>11)</sup>

이 역시 같은 단어의 나열이라도 어떤 구두점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즉 구두점이 의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2. 쉼표와 의미

다음의 예는 쉼표가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 a. John Smith had a son who became a priest.

b. John Smith had a son, who became a priest.

(11a)에서처럼 관계대명사 “who” 앞에 쉼표가 없으면, “John Smith”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11b)에서처럼 “who” 앞에 쉼표가 있으면 (소위 관계대명사의 비제한적 용법, cf. Jespersen 1933/1956 p.357f), 이 때는 “John Smith”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아들이 사제가 되었다는 뜻이 된다. (11a)와 (11b)의 의미 차이는 바로 쉼표의 여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구두점이 중요한 의미적 정보를 전달할 수

---

11) (9)에 비해 (10)에서는 “그가 부유하다”는 것이 화자인 “I”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의 예도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 (12) a. He doesn't believe preowned car dealers who are unscrupulous.
- b. He doesn't believe preowned car dealers, who are unscrupulous.

(12a)에 비해 (12b)는 “preowned car dealer”들은 모두 “unscrupulous”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역시 쉼표가 의미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람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 쉼표를 잘못 사용하면 성과 이름이 뒤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이름을 영어로 쓸 때 다음과 같이 쓰면, 쉼표 앞의 “Gildong”이 성이 된다.

- (13) Gildong, Hong

따라서 쉼표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써야 된다.

- (14) Hong, Gildong<sup>12)</sup>

한글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는 복잡한 논의를 요하며 본 논문의 중심 주제는 아니므로 피하기로 하겠다. 단지 쉼표 하나가 성과 이름을 뒤바뀌게 할 수도 있다는 점만, 다시 말해 쉼표가 의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로 하겠다.<sup>13)</sup>

12) 이러한 방식은 주로 인명 사전이나, 백과 사건의 인명 항목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13) 한글 이름을 영어로 적을 때 이름에 덧금(하이픈)을 사용할지와 성과 이름의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다. 그런데 여러 가능성 중에서 본문에서 예로 든 것처럼 이름을 먼저 쓰고 쉼표를 한 후 그 다음에 성을 쓰는 것이 가장 나쁜 방법이다.

### 2.3. 올린첨표(어포스트로피)와 의미

다음의 예는 올린첨표(어포스트로피)의 위치 차이로 “John”과 “Mary”가 부부 사이인지 여부가 결정됨을 보여준다.

- (15) a. John and Mary's children  
b. John's and Mary's children

즉 (15a)에서와 같이 “John”에는 올린첨표가 없고 “Mary”에게만 올린첨표가 있을 때는 “children”이 “John”과 “Mary” 두 사람 공동의 “children”이 된다 (cf. joint possession). 따라서 “John”과 “Mary”는 부부 사이가 된다.<sup>14)</sup> 이에 비해 (15b)에서처럼 “John”과 “Mary”에 각각 올린첨표가 사용되면, “children”은 “John”과 “Mary” 각각의 아이들의 집합이 된다(cf. individual possession). 따라서 “John”과 “Mary”는 부부 사이가 아니게 된다. 이는 올린첨표에도 중요한 의미가 부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4. 덧금(하이픈)과 의미

다음 예를 보도록 하자.

- (16) The meeting was attended by forty odd professors.

위의 문장은 그 모임에 참석한 교수는 40명인데, 그 40명이 “이상하다”(odd)는 뜻이다. 즉 “forty”는 “odd professors”를 수식한다. 그런데 다음 예와 같이 “forty”와 “odd” 사이에 덧금(하이픈)을 넣으면 뜻이 전혀 달라진다.

- (17) The meeting was attended by forty-odd professors. (cf. Allen p.18)

14) (15a)에서 접속사 ‘and’로 연결된 것이 [John]과 [Mary's children]일 수도 있으나, 이것이 본문에서의 논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이 때는 “odd”가 앞의 숫자 “forty”와 결합해 “40여명,” “40명 정도”의 뜻이 된다. 따라서 그 모임에 참석한 교수들이 이상한지 여부는 전혀 표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덧붙임 하나가 문장의 의미를 현저하게 다르게 만들 수 있다.

## 2.5. 겹점(콜론)과 의미

다음과 같이 겹점(콜론)을 포함하는 영어 문장을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해야 할까?

(18) Americans sometimes say that it is dangerous to talk about two topics: religion and politics.

혹시 다음과 같은 번역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19) 미국인들은 때때로 두 가지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한다: 종교와 정치.

위와 같은 번역은 우리말로 대단히 어색하다. 이는 영어의 겹점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다. 영어의 겹점은 기본적으로 겹점 앞부분의 어떤 요소와 겹점 뒷부분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 둘 간의 연결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위와 같은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의 영어 문장에서 겹점 뒤의 “religion and politics”는 앞의 “two topics”와 연결시켜야 한다. 따라서 “two topics”를 “다음의 두 주제” 혹은 “종교와 정치의 두 주제” 등으로 번역하든지, “religion and politics”를 “그 두 주제는 종교와 정치이다”라는 식으로 번역해야 자연스럽게 들린다. 다음은 그 둘을 연결시킨 번역의 예이다.

(20) a. 미국인들은 때때로 다음의 두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하

다고 말한다. 그 두 주제란 바로 종교와 정치이다.

- b. 미국인들은 때때로 종교와 정치라는 두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한다.

다음 예들도 유사한 경우인데, (21a)에서는 겹점 뒤의 “finding a thesis”를 겹점 앞의 “the first lesson”과 연결시켜 해석해야 하며, (21b)에서는 겹점 뒷부분을 겹점 앞의 “three main kinds of sentences”와 연결시켜 해석해야 한다.

- (21) a. The first lesson 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one in the book: finding a thesis.
- b. There are three main kinds of sentences: simple, compound, and complex.

또한 편지에서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겹점 여부가 친소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 (22) a. Dear Mom,
- b. Dear Sir: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절친한 사이의 편지에서는 일반적으로 ‘Dear 표현’ 다음에 쉼표를 사용한다(cf. 22a). 그에 비해 격식을 갖추어 쓰는 편지에서는 일반적으로 “Dear 표현” 다음에 겹점을 사용한다(cf. 22b). 그런 점에서 구두점이 실제 단어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추가 의미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 2.6. 기울임체(이탤릭체)와 의미

다음 문장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

15) 사람에게 따라 이러한 구분을 따르지 않기도 한다 (cf. Shaw p.61).

(23) Relative clauses with which need special care.

혹자는 이 문장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관계절”이라는 의미쯤으로 이해했는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런 의미를 의도했다면, 전치사 “with”는 불필요했을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주어는 “Relative clauses with which”이고 여기서 “which”는 관계 대명사 중의 하나인 “which” 자체를 지칭한다. 따라서 글쓴이가 의도한 것은 “which를 포함하는 관계절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런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즉 “which”가 그 단어 자체를 지칭하게 하기 위해서, “which”는 다음과 같이 기울임체(이탤릭체)로 써야 한다.

(24) Relative clauses with *which* need special care.

즉 영어에서 기울임체를 사용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들도 마찬가지로 점을 보여준다.

- (25) a. Note that you cannot use *that* in this type of clause.
- b. Use *little* with things that cannot be counted. Use *few* with countable things.
- c. *No* was used before consonants and *none* before vowels.
- d. It was understood that *a* was a weakened form of *one*, and that *the* derived from *that*.
- e. As well as linking two main clauses, *and* and *or* can link subordinate clauses.

이제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26) a. Hamlet has appeared on screen more often than any other

Shakespeare play.

- b. Laertes cynically presumes that Hamlet's affection for Ophelia cannot be serious.

위의 두 문장에 모두 “Hamlet”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26a)의 “Hamlet”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 『햄릿』을 가리키고, (26b)의 “Hamlet”은 그 작품의 주인공 “햄릿”을 가리킨다. 이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작품을 나타내는 “Hamlet”은 기울임체로 쓴다. 즉 (26a)는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 (27) *Hamlet* has appeared on screen more often than any other Shakespeare play.

이와 같이 영어에서 책 등의 제목을 나타낼 때는 기울임체를 사용한다. (이 때 제목의 대문자쓰기에도 유의를 해야 하는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종속 접속사 등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관사, 전치사, 등위 접속사 등은 소문자로 쓴다. 또 첫 번째 단어는 어떤 품사라도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 다음은 책 제목을 기울임체로 표시함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 (28) a. *The Great Gatsby* was published on 10 April 1925.
- b. The two books that made George Orwell famous, *Animal Farm* (1945) and *Nineteen Eighty-four* (1949), were both inspired by his lifelong hatred of totalitarianism.
- c. *Romeo and Juliet* is Shakespeare's love tragedy of youth as *Anthony and Cleopatra* is his love tragedy of middle age.<sup>16)</sup>

---

16) 잡지 제목이나 신문 제목도 기울임체로 표시한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In the new *Time* survey, Americans say the President is performing poorly and the Country is on the wrong track (*Time* = 미국의 시사 주간지 이름). *USA Today* published a report on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in the United States (*USA Today* = 미국의 일간지 이름).

이에 반해 짧은 글이나 시의 제목, 노래 제목 등은 따옴표를 둘러 표시한다. 즉 같은 제목이라도 기울임체를 사용하는지 따옴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제목이 지칭하는 대상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중요한 의미적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단편 소설의 제목이나 시의 제목을 따옴표로 표시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 (29) a. O. Henry wrote “The Gift of the Magi” in 1905.
- b. During the early 1800’s, Wordsworth also wrote many of his best poems, including “Ode: Intimations of Immortality.”

이제 다음의 예를 보자.

- (30) a. *The Sound of Music* is a 1965 film directed by Robert Wise.
- b. It contains many popular songs including “Edelweiss” and “The Sound of Music.”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제목이라도 영화 제목일 경우에는 기울임체로 쓰고, 노래 제목일 경우에는 따옴표를 둘러 표시한다. 그러므로 문맥상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것이 지칭하는 바를 알아내도록 해야 한다.

교향곡, 오페라, 미술 작품, 조각 작품 등의 이름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울임체를 사용한다.

- (31) a. In his third symphony, the *Eroica*, Beethoven revealed the ideal of heroism that he thought Napoleon symbolized. (교향곡 이름)<sup>17)</sup>

---

17)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음악 작품의 이름은 따옴표를 둘러 표시한다.  
예: Beethoven also wrote 14 piano sonatas, including the so-called “Moonlight” sonata.

- b. Verdi produced a remarkable series of masterpieces, including *Rigoletto*, *Il Trovatore*, *La Traviata*, and *Aida*. (오페라 이름)
- c. Millet is famous for a few paintings, such as *The Gleaners*, *The Man with the Hoe*, and *The Angelus*. (미술 작품 이름)
- d. *The Thinker* is Auguste Rodin's most noted work. (조각 작품 이름)

### 3. 영어 구두점과 문법성

영어에서는 구두점 여부가 해당 문장의 문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1. 관계대명사의 비제한적 용법의 경우

다음에서와 같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고유명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쉼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 (32) a. Constantine I, who became emperor in 306, ruled the East and West Roman Empires after 324.
- b. There he met Steven Jobs, who started Apple Computer in his garage.
- c. With Alfred North Whitehead, Bertrand Russell wrote *Principia Mathematica*, which opened a new era in the study of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 d. Dr. Martin Luther King was rushed unconscious to St. Joseph Hospital, where he died.
- e. The reign of Augustus marked the beginning of the *Pax Romana* (Roman peace), which lasted for 200 years.<sup>18)</sup>

한국에서는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를 붙이는지 여부는 자유이며 단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떤 순서로 번역하는지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우선 영어의 문법을 우리말의 번역 순서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영문법은 영어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영문법 사항이 한국어의 번역 순서와 결정적 관계를 맺는다면, 한국어를 모르는 영어화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영어에서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를 붙이는지 여부는 해당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의 지시 내용(reference)이 문맥 혹은 상황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른다. 선행사의 지시 내용이 결정되어 있으면 (즉 고유명사라든지, 유일한 대상을 지칭한다든지, 혹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상이라든지 등),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를 사용한다 (이를 관계대명사의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름). 이 때 쉼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된다.<sup>18)</sup>

반면에 선행사의 지시 내용이 관계절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 때는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름).

- (33) a. It's so nice to meet a guy who knows how to treat a lady.  
b. The zebra which the lion picked on was clearly sick.

### 3.2. 두 문장을 접속사 없이 연결하는 경우

다음 문장이 문법적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18) 그러나 고유명사가 보통명사화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The Dr. Baker who I know is from Texas.

I look forward to an America which will not be afraid of grace and beauty. (JFK)

19)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고유명사가 아니더라도 지시 내용이 결정되어 있으면, 해당 관계 대명사 앞에 쉼표가 사용된다. 다음은 그 예이다.

예: For my father, who made it all possible (Bassnett 1991 헌사)

'my father'가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저자에게 아버지는 단 한 분밖에 없으므로 지시 내용이 결정된 셈이다. 따라서 관계대명사 'who' 앞에 쉼표가 사용된 것이다.

(34) It's easy to be ordinary, it takes guts to excel.

위의 문장은 두 개의 완전한 절 (즉 “It's easy to be ordinary”라는 완전한 절과 “it takes guts to excel”이라는 또 하나의 완전한 절)을 쉼표로 연결한 것이다. 이는 흔히 “쉼표 접속 오류”(comma splice)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잘못된 문장이다.<sup>20)</sup>

두 개의 대등한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와 같이 등위 접속사--예를 들면 “and,” “but,” “or,” “for,” “so”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It's easy to be ordinary, but it takes guts to excel.

그런데 앞의 문장을 등위접속사 “but”를 첨가하지 않고서도 문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쉼표 대신 반결점(세미콜론)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반결점이 “쉼표 + 등위 접속사”를 대신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앞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반결점을 사용하면, 접속사 없이도 문법적이 된다.

(36) It's easy to be ordinary; it takes guts to excel.

즉 두 개의 완전한 절을 쉼표로 연결하면 비문법적이 되지만, 반결점으로 연결하면 문법적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느 구두점을 사용하는지가 문장의 문법성에 결정적 역할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 예들도 마찬가지로 점을 보여준다.

(37) a. Laugh, and the world laughs with you; weep, and you weep

20) 다음에서와 같이 대단히 짧은 길이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병렬적(parallel) 구조를 가진 등위절 간에는 예외적으로 쉼표 접속 오류가 허용되기도 한다.

예: I came, I saw, I conquered.  
 Life is short, art is long.  
 Two's company, three's a crowd.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en.

- alone. (cf. \*Laugh, and the world laughs with you, weep, and you weep alone.)
- b. Only popular programs stay on the air; others are quickly canceled. (cf. \*Only popular programs stay on the air, others are quickly canceled.)
- c. Don't worry that you lost; you played a good game anyway. (cf. \*Don't worry that you lost, you played a good game anyway.)

이제 다음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38) Many people are lonely, however, few know how to make friends.

위에서 사용된 “however”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이다(cf. Troyka & Hesse 290). 따라서 부사로 두 개의 완전한 절을 연결하는 것도 잘못이다. 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문장으로 분리하거나, 반접점을 사용하여 두 문장을 결합해야 한다.

- (39) a. Many people are lonely. However, few know how to make friends.
- b. Many people are lonely; however, few know how to make friends.

이 역시 특정 구두점의 사용이 문장 전체의 문법성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영어에는 관행적으로 쉼표를 쓰거나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도 관행에 맞지 않게 쓰면 어색한 영어 문장이 된다. 다음의 예는 낱짜와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나란히 사용될 때, 둘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함을 보여준다.

(40) They married on June 23, 1984.

만일 날짜와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연이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41) They married on 23 June 1984.

아예 날짜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2) They married in June 1984.

이와 같은 예들도 정확한 영어 문장을 구사하는 데 있어 구두점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 4. 영어 구두점과 명확성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 (43) a. Those who can do; those who can't teach.  
b. Those who can, do; those who can't, teach.

쉼표가 없는 (43a) 문장은 'do'가 'can'의 보충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해 되기가 쉽다. 따라서 (43a) 문장을 주어와 동사가 모두 포함된 문장으로 이해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43b)에서와 같이 쉼표를 사용하면 'do'는 "Those who can"이라는 주어의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는 구두 점이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다음의 예들을 비교해 보자.

(44) a. To John Smith is a puzzle.

vs.

To John, Smith is a puzzle. (Leggett et al. 174)

b. Inside the house cats are sometimes a nuisance.

vs.

Inside the house, cats are sometimes a nuisance.

(Leggett et al. 174)

c. Of the gymnastic team's twenty five were injured.

vs.

Of the gymnastic team's twenty, five were injured.

(Troyka & Hesse 424)

d. For scientists tracking and measuring hurricanes is still an inexact science.

vs.

For scientists, tracking and measuring hurricanes is still an inexact science. (Troyka & Hesse 424)

위의 예들에서 쉽표가 없는 문장은 구조가 쉽사리 파악되지 않고 혼동이 일어난다. 그에 비해 쉽표를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 문장은 구조 및 의미 파악이 훨씬 명확해진다. 이는 구두점이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영어 교육에서 구두점의 기능에 대해 특별히 주목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5. 맺음말

영어의 구두점은 영어로 글을 쓸 때 더 중요하게 맞부딪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 글을 이해하는 데 구두점이 무관한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영어 구두점이 의미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영어 표현의 문법성 및 명확성에도 긴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를 통해 영어

구두점이 영어 글의 정확한 이해와 구사를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 할 사항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 현장에서 구두점이 무시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들 자신이 구두점의 의미나 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자신이 구두점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는 그들 역시 영어 교육 과정을 통하여 구두점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배워보지 못한 것을 가르치기 어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사각 지대로 남아있는 영어 구두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비 영어 교사들이 영어 구두점에 대해 철저히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아울러 현직 영어 교사들이 영어 구두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 현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도입시킬 것을 제안한다.

첫째, 영어 교사 양성 과정에서 영어 구두점의 세부 사항들이 충실히 교육되어야 한다.

둘째, 중고교 영어 시험에는 영어 구두점의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를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중고교 영어 교과서에는 영어 구두점의 용법을 설명하는 단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국내 영문법 책에도 영어 구두점 관련 용법을 다루는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중고교 영어 교육에서 최소한 문단 수준의 영어 글쓰기 훈련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속히 이루어져,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 인용문헌

- 교육부. 『제7차 교육 과정: 외국어과 교육 과정 (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 교육부. 『외국어과 교육과정 (I) [별책 14]』.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7.
- 김정수. 「구두점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6.
-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1937/1984.
- Allen, Robert. *Punctuation*. Oxford: Oxford UP, 2002.
- Bassnett, S. *Translation Studies*. Revised edition. London: Routledge, 1991.
- Haley-James, S. and J. W. Stewig. *English*. Houghton Mifflin Company, 1988.
- Jespersen, O.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George Allen & Unwin, 1933/1956.
- Leggett, G, and C. D. Mead and M. G. Kramer. *Handbook for Writers*, 11th ed. Prentice Hall, 1991.
- Shaw, Harry. *Punctuate It Right*, Harper Perennial, 1986.
- Troyka, L. Q, and D. Hesse. *Handbook for Writers*, 8th ed. Pearson, 2007.

Abstract

## **The Meaning and Grammatical Role of English Punctuation: From a Pedagogical Perspective**

Hak-Sung Han (Kyung Hee University)

The current national curriculum requires secondary-school students to acquire competence in the use of English punctuation. In reality, however, punctuation is virtually ignored in almost every English classroom in Korea. In this paper I demonstrate that punctuation marks can carry important semantic information and that they can also affect grammaticality of sentences. This will show that the competence in English punctuation is needed for better reading as much as for better writing. Based on this, I argue that punctuation should be an essential part of English education.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I suggest ways to introduce punctuation more seriously into the English education in Korea.

**Key words:** English punctuation, semantic information, grammaticality, clarity, education.